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63期(2025.12.03) WWW.MINGHUI.ORG

한글판 1027호 minghui.or.kr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1월 9일에 개막했습니다.

주요내용

- 【중국법회】 수련 중의 신기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
- 【중국법회】 대법을 확고히 수련하는 것은 나의 역사적 서약
- 【중국법회】 직장 환경에서 질투심을 수련해 없애다
- 【중국법회】 정진실수(精進實修) 속에서 서약을 실천하다

〈목 차〉

■ 중국법회

수련 중의 신기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	3
대법을 확고히 수련하는 것은 나의 역사적 서약	18
직장 환경에서 질투심을 수련해 없애다	28
정진실수(精進實修) 속에서 서약을 실천하다	44
서약 이행, 각 방면의 중생을 구하다	58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련 중의 신기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

글/ 중국 후베이 대법제자 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저는 올해 75세로, 농촌 여성이며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8년에 다행히 대법을 얻어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련 과정을 되돌아보면,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의 보호와 가지(加持), 그리고 신묘한 안배하에서만 갖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을 초월하여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을 보살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을 준 수련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수련 중에 직접 겪은 몇 가지 작은 이야기를 적어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고 사부님께 보고드리며, 대법의 과학과 신기함을 실증하려 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1. 글을 몰랐던 내가 1년 만에 ‘전법륜’을 읽게 되다

저는 40세 전후에 심각한 흉부 늑막염을 앓았고, 심장병, 고혈압 등도 앓았습니다. 당시 현(縣) 병원에서 진료받고 일주일 넘게 입원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늘 병든 몸을 이끌고 출근을 고집했고(단체 소속 가족 직원),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으며 온몸이 아파 시시각각 고통 속에서 시달렸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제대로 살 수도 없는데, 돌봐야 할 네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남편은 밖에서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고 저에게 줄곧 냉담했습니다. 게다가 사리 분별도 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분풀이로 저를 한바탕 때리곤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전통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했기에 싸우거나 맞서지 않았지만,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엄마가 없다면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바로 희망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버텨나가야 하며, 정신은 절대로 무너지서는 안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끌며 버텼습니다. 1998년, 제 몸이 극도로 힘들어서 거의 죽게 됐을 때, 정말로 인연이 닿았는지 평소 자주 오지 않던 친척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척은 저를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고 저는 병세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척은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파룬궁을 수련하세요. 이 공법은 아주 좋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착실하게 수련하기만 한다면,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친척은 파룬궁의 신기한 효과를 설명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수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병만 나을 수 있고 몸이 건강해진다면 수련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친척을 따라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척이 떠난 후 저는 다른 수련생들을 찾아 연락했고, 매일 저녁 단체로 ‘전법륜’을 배우고 아침에는 단체로 연공했는데, 몸이 날마다 가벼워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도 채 안 돼 모든 병이 다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공법이 보통 공법이 아니라고 느꼈고, 마음은 매우 유쾌해졌으며, 예전의 근심 가득한 얼굴도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병이 없으니 몸이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사람처럼 변했고 살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수련생이 책을 읽어주면 저는 매우 열

심히 들었고, 글자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대조하며 보았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적어 두었다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으며, 약 1년여 만에 저는 스스로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친척, 친구, 동료들은 저의 변화를 보고 모두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수련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병이 다 나았고, 1년여 만에 또 글을 읽게 되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실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다면 누가 당신이 말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2. 몇 차례의 교통사고에서 사부님의 보호로 안전해지다

1) 대략 2016년 8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저는 이웃의 한 아주머니와 함께 문화광장에 산책하러 갔는데, 사람을 만나면 진상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곧장 돌진해 와서 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차 보닛 위로 부딪혔는데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고, 저를 차 밑으로 끌고 들어간 후에야 멈췄습니다.

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명은 차 밖에 쓰러져 있고, 한 명은 차 밑으로 말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급히 구급차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는 저와 이웃 아주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심지어 피부도 긁힌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아주머니는 가슴 오른쪽 아래 갈비뼈 두 개가 부러졌고, 특히 요추가 삐뚤어져 몸을 가누지 못해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는 사람이었기에 당시 마음이 아주 순정했고,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보호해주셔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또다시 저를 보호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부님의 은혜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웃 아주머니는 수련인이 아니었기에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 달 이상 입원했고, 1만 위안(약 2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썼으며, 지금까지도 몸을 똑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보험회사는 저에게 돈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운전자도 저희를 고의로 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저의 이해심에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보험회사 사장에게도 진상을 알려 그가 사악한 중국공산당(중공)의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인연이 있어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제가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가족들은 돈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승용차 밑으로 말려 들어갔을 때 받은 충격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옆집 아주머니보다 훨씬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차 밖에 쓰러져 있었는데도 그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당신은 차 밑으로 말려 들어갔고 공간이 그렇게 작은데 다칠 확률이 매우 높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당신을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안전한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반복적으로 소통한 후 그들은 당시 돈을 받지 않기로 동의했지만 제가 정말 바보 같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사람들도 제가 아주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큰일을 당하고도 돈을 받을 줄 모르는 것이 좀 바보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언니가 소업(消業)이 매우 중하여 저는 두 달 넘게 언니를 돌보았습니다. 돌아와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묻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마세요. 엄마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계속 추궁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보험회사가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에게서 받았어요. 아주머니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후유증이 있어서 그 아들이 원하길래, 한 사람당 4천 위안(약 80만 원)씩 제가 받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에 있니?” 아들은 “아빠한테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당신한테 있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응.”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치지 않았으니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는 말없이 있다가 나중에 그 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몸이 불편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종양이 생겼다고 하면서 입원하여 작은 수술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퇴원할 때 계산해보니 딱 4천 위안이 나왔습니다. 언지 말아야 할 것은 잃어버리거나 재난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천리(天理)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며,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씨가 선량해야 자손에게 복덕을 쌓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건은 끝났을 것이고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보험회사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은 자리에 없었고 저는 직원에게 사고 발생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직원이 조회를 해보니 보험회사를

고소한 소장이 있었는데, 증명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저희 집 호적부, 제 신분증, 제 사진이었으며, 소송 신청인 이름이 저였고, 보험회사에 배상금 8만 위안(약 1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으로 다치지도 않았고 보험회사가 돈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았는데, 제가 보험회사를 고소할 리가 있습니까?! 누가 저의 명의로 보험회사를 갈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가족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증명 서류는 모두 제 것인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수련생을 찾아가 상의했고 수련생은 “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이 일을 설명하고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정에 밝은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소송 신청인 이름과 각종 증명 서류가 모두 당신이니, 당신이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가서 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소송을 취하하러 갔습니다. 그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 일을 처리할 때 당사자의 호적부, 신분증, 사진, 가해 운전자 등을 모두 현장에 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 저의 완전한 증명 서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역주: 중국에서는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2) 언젠가 저는 언니 수련생과 전동 릭샤(삼륜 스쿠터)를 타고 시골에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러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반대편에서 큰 오토바이 한 대가 정면으로 돌진해 와서 우리가 탄 전동 릭샤 앞 유리창을 모두 부셨고, 차체 앞부분도 전부 망가

뜨렸으며, 언니의 가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즉시 외쳤습니다. “사부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언니는 아무 일도 없었고, 저도 아무 일 없었으며, 운전자도 무사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다시 진상을 알리고 사람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희를 다시 보호해주신 대자대비하신 사부님께 만분으로 감사드립니다!

3) 어느 해 청명절, 저희 세 자매는 친정에 돌아가 부모님 산소에 성묘하고 돌아오는 길에 탄 것도 전동 킥샤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게 킥샤가 갑자기 길가의 깊은 도랑으로 뒤집혀 넘어졌습니다. 당시 제 손자는 머리에 큰 혹이 났고, 저희 세 자매는 차 안에서 충돌했는데, 언니는 머리에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고, 여동생(수련하지 않음)은 손이 부러졌지만, 저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부님,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일주일 후 모두 상처가 나았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연공하면 온 식구가 혜택을 본다.”(오스트레일리아법회설법)

3. 진상 알리기, 삼퇴로 사람들을 구하는 가운데 정념의 위력과 신기함

1) 사악한 것이 제거되자 경찰이 가버리다

한번은 제가 수련생과 함께 나가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들을 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수련생이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몇 명의 경찰이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고, 경찰은 오자마자 수련생의 손을 잡고 우리를 파출소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사부님의 정법 구결이 생각나서 묵묵히 외웠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도중에 경찰은 수련생의 손을 놓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몇 명의 경찰이 모두 스스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다시 해야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시시각각 가지하고 보호 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2) 경찰이 정지되다

어느 일요일, 저는 광장에 가서 진상을 알릴 만한 사람이 있는지 보러 갔다가 한 젊은 남자를 만났고 웃으며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보조 경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수련생의 대법서적이 경찰에게 압수당했는데 바로 이 보조 경찰이 소속된 부서였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현세(現世)의 응보 피할 길이 없고”(홍음4-더 날뛰어 봐라)의 법을 떠올렸고, 그에게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나쁜 일, 악한 일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라고 하며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걸으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마치 그 자리에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떠났는데 그가 언제 갔는지는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하신 것이며 대법의 위덕입니다!

3) 사부님께서 보내주신 인연 있는 사람

여름 방학의 어느 날 정오, 저는 손녀를 에어컨이 있는 방에 안고 가서 재운 후 진상을 알리러 나갔습니다. 광장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이 없는 걸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진상을 알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부님께 안배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약 15분 정도 지났을 때, 한 노신사가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밀고 와서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왜 휠체어를 탔는지 물었고, 그녀는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치마를 걷어 다리를 보니 종아리가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변형되지는 않았고, 멀쩡한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베이징, 상하이 등 사방으로 의사를 찾아다녔고, 절에도 갔지만 차도가 없었으며, 이제는 치료할 돈도 많지 않아 포기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신을 믿으십니까?” 그녀는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라고 가르쳐 주었고, 그녀에게 선원 CD를 주면서 매일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고 매일 선원 CD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경건하게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광장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동작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왔는지 보려고 찾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당신 덕분이에요!” 노신사도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 저희 사부님 덕분입니다! 사부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부님 덕분입니다, 사부님 덕분입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4) 잘못을 깨닫고 고치자 길 가던 사람이 구원받다

저는 길거리에서 진상 자료를 나누어주고 있었는데, 길가에 있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구하고 싶어 작은 책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이는 매우 기뻐하며 책자를 들고 보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앞에서 아이가 뭔가를 받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보자마자 책자를 빼앗아 땅에 던져 버리고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와서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이를 망치지 마세요!” 큰 길에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욕을 할 때 저는 정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배후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악한 생명과 사악한 요소를 제거한다.’ 저는 멈춰 서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아이의 어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아주머니께 말씀드리고 아이에게 책자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래야 좀 봐줄 만하지. 음, 저것 좀 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방금 던진 그 책자요.” 저는 서둘러 그녀에게 책자를 주었고, 그녀의 아이는 다시 책자를 가져다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위력입니다. 그녀를 조종하던 사악한 요소가 제거되자 사람이 깨어나서 본래의 선량한 본성을 회복했습니다.

5) 양쪽으로 병행하다

곧 설이 다가와서 저는 슈퍼마켓에 가서 명절 물품을 사려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계산대에 가져가서 계산할 때, 계산원이 제가 사용한 것이 진상 지폐인 것을 보고, 돈 위에 ‘천멸중공, 천우중화(天滅中共, 天佑中華)’, ‘파룬따파하오’ 등이 인쇄된 것을 보고 말

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은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사장님께 꾸중 들을까 봐 두려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돈밖에 없고 다른 돈은 없어요.” 우리 둘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뒤에는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지만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하나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만 가지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一個不動能制萬動)!”(각지 설법5-2005년 캐나다법회 설법)는 법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묵묵히 ‘하나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만 가지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 정법 구결과 ‘사부님께서 저를 도와 대법을 실증하게 해 주십시오’를 외웠습니다.

이때 질서를 유지하는 직원이 한 명 다가왔습니다. 그는 돈을 보더니 사장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는데, 손에 돈을 들고 높이 들면서 말했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이 돈이 왜 안 됩니까?!” 그제야 계산원은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명절 물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부님의 보호 아래 저는 또 한 관을 넘긴 것입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법과 정념이 정말로 위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6) 산골 마을에 선원 CD를 배포하다

중국에서 아직 선원 CD를 배포할 수 있었을 때, 한번은 저와 수련생이 선원 CD 50~60개를 가지고 수십 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가서 배포했는데, 마을에 도착해 보니 모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헛걸음했다고 생각하고 원래 길로 돌아가려 했지만, 나중에 다른 길로 나가기로 하고 원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막 벗어났을 때, 앞쪽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들은 도랑을 파고 있었고, 케이블을 설치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리켜 주셨구나.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구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선조가 나무를 심으면 후손이 그늘에서 쉬듯이, 자손을 위해 복을 짓는 것이니 여러분은 복이 많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당 선원 CD를 하나씩 드릴게요. 그 안에는 모두 선녀와 신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주고 ‘파룬파 파하오, 찌싼런하오’ 등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그 위에 놓아두었는데, 더럽히지 않으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사부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니 감사하려면 저희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사부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매우 기뻐고 ‘오늘 밤 많은 사람이 선원을 볼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 사부님의 구원을 받아 아름다운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 언니의 반(反)박해를 성공적으로 돕다

한번은 언니(수련생)가 밖에서 진상 스티커를 붙이고 있을 때, 진상을 모르는 사람이 신고해 경찰이 언니를 파출소로 잡아갔고, 심문실에 매달아 고문했습니다. 언니는 적절한 진상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언니의 한쪽 손을 창문에 수갑으로 채워 매달았고, 아래 발가락은 아주 조금만 땅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60세가 넘는 사람인데 하루 밤낮을 매달려 있었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없으며 진선인(眞·善·忍)의 수련 원칙에 따라 착한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항상 남을 돕는데, 중공 경찰에게 이처럼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흑백을 전도하고 정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병이 위중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언니를 보기 위해 심문실로 갈 방법을 생각했고, 언니의 마을 서기를 찾아가 파출소에서 언니의 평소 행실을 증명하게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파출소에 가서 상황을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심문실에 도착한 후(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언니가 말하려고 하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수갑을 보니 요령껏 힘을 주면 손을 수갑에서 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했고, 언니에게 막 가져간 깨끗한 옷 한 벌과 모자를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전후 5분도 채 안 돼 언니는 안전하게 도망쳐 나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사부님의 도움과 신묘한 안배, 그리고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언니가 탄 차가 막 떠나자, 파출소는 사람이 도망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여러 대의 차를 보내 여러 갈래로 추적했으며, 또한 길목을 막고 검문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파출소는 매우 분노했고 사건 후 경찰은 자주 언니 집에 와서 언니의 남편과 아들에게 언니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흉악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즉시 우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녀를 감시하여 외출을 금지하고, 법 공부와 연공도 금지하고, 진상 알리는 것도 금지하고, 진상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과 온 가족을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사납게 위협하고 공갈하며 담이 작고 겁이 많은 이 농촌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1년여 후, 언니는 남편과 아들의 엄격한 통제, 감시와 경찰의 끊임없는 소란, 공갈, 위협, 박해 속에서 예전에 앓던 병이 재발했고, 병을 거의 1년 가까이 끌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공산악당이 대법제자에게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입니다!

5. 이상한 꿈 하나

어느 날 밤 제가 연공을 마치고, 침대에 기대어 잠시 쉬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밖의 모르는 장소를 걷고 있었고, 앞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고, 고대 의상을 입은 그의 가슴 일부만 볼 수 있었는데, 그는 줄곧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간 후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뒤에 있던 그 사람이 그 큰 나무가 쓰러진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걸어가서 보니 많은 검은 진흙 인형들이 구덩이 속에서 서로 밀치고 당기며, 모두 쓰러진 나뭇가지 위로 기어 올라가 그들이 있는 검은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기어 올라왔는데, 아래에 있던 사람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흔들자, 다시 거의 기어 올라왔던 사람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시 검은 구덩이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고 있는데 뒤에 있던 그 사람이 저에게 “앞으로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큰 산을 벗어나니 앞에 큰길이 있었고, 큰길 옆에는 또 한 무리의 검은 진흙 인형들이 보였습니다. 뒤에 있던 그 사람이 다시 저에게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가, 앞으로 가!”

저는 검은 진흙 인형들이 날카롭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뒤돌아 보려고 했는데, 뒤에 있던 그 사람이 아주 엄숙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 가!!”

제가 그 사람 쪽으로 걸어갔을 때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조급해하며 잠에서 깬는데, 꿈이었던 것입니다.

깨어난 후 저는 이 꿈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꿈은 무슨 의미일까? 사부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일까?’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수련의 길에서 사부님께서서는 줄곧 저를 위해 난관에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결길로 갈까 걱정하시고, 정법 노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까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호기심을 갖거나 한눈팔지 말고, 자신의 정법 수련을 지체하거나 심지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오직 대법에 따라 자신의 심성을 대조하며 곧고 안정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굳건하고 확고한 의지력을 가지고, 수련을 처음 처럼 해야 합니다.’

사부님의 일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정진하며 착실하게 수련하고, 법을

많이 배우고 잘 배우며, 제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잘할 것입니다. 갖가지 사람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안으로 많이 찾으며, 지금껏 내려놓지 못한 갖가지 집착을 제거하고, 자신의 심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우주의 특성 ‘진선인’에 동화되어, 사부님을 따라 저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자대비하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부님, 마음 쓰셨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자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고도(苦度)에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총차가 한정되어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대법을 확고히 수련하는 것은 나의 역사적 서약

글/ 중국 광둥성 대법제자 청련(淸蓮)

[명혜망] 저는 1998년 4월 6일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배움이 짧아 늘 자신이 쓴 글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이 수련 과정에서 교류문장을 쓴 적이 없었고 단지 장쩌민(江澤民) 고소장을 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올해 명혜망에 발표된 중국 대법제자 수련심득교류 원고모집 통지를 본 후, 제 생각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나왔습니다. 저도 수련심득교류를 쓰고 싶고, 제가 20여 년간 겪은 일부 수련 경험을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과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 1999년 ‘7·20’ 전 법을 얻은 1년여 동안

1999년 ‘7·20’ 이전, 우리집은 법공부 장소였습니다. 우리집이 컸기에 거실에 30, 40명이 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도원이 제게 우리집에 법공부 장소를 만들 수 있겠냐고 말했고, 당시 저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승낙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 기관에서 출근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저를 알았기에 많은 사람이 우리집에 와서 법공부를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액자 3개를 만들어서 사부님 법상과 진선인(眞·善·忍) 세 글자, 그리고 사부님 경문 ‘논어(論語)’를 각각 액자에 넣어 거실 중앙에 걸었는데 정말 장엄하고 신성했습니다.

그때 소조에서는 늘 사부님의 설법을 듣고 경문을 학습했는데, 보도원은 다른 법공부 장소의 수련생도 우리집으로 불러 함께 사부님 설법을 듣고 경문을 학습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크나큰 불은(佛恩) 속에 융해돼 수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법공부를 한 20여 일 동안 예전의 모든 질병이 전부 사라졌고, 정말 병이 없어 온몸이 가벼운 느낌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2. 대법제자가 박해받는 상황에서의 수련

하지만 제가 수련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중공(중국공산당) 악당은 대법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는 파룬궁에 대해 악선전을 하고, 직장 위아래에서 일일이 수련생을 찾아 면담하고 책을 제출하게 했는데, 당시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국가에서 왜 수련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국가는 좋은 사람이 많은 걸 두려워하나?’ 나중에 보도원이 몰래 우리집에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수련하지 못하게 하니 우리도 방

법이 없어요. 수련하려면 집에서 하세요.” 그렇게 우리집 법공부 장소는 흩어졌습니다. 저는 사부님 법상과 ‘논어’, ‘진선인’을 모두 내려서 잘 포장해 숨겨두었고, 새집으로 이사 가서야 꺼내어 사부님께 향을 올렸습니다.

기관에서 근무했기에 많은 사람이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것을 알았고, 상사도 늘 이 일을 언급했습니다. 그들도 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국가에서 수련하지 못하게 하면 수련하지 말아야지, 국가 말을 들어야 해.” 제 상사인 한 간부가 몰래 제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도시에서 출근하니 신청서를 써서, 아들이 아이를 돌봐달라고 해서 간다고 하고 간부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은퇴하면 되지 않나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방법도 꽤 좋아서 손녀가 태어난 후 저는 상사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3. 사부님의 가지하에 수련생을 찾다

새로운 환경에 오니 비록 아직도 파룬궁 수련하느냐고 캐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수련생을 찾지 못해 말할 사람조차 없어 마음이 꽤 조급했습니다. 때로는 직장 수련생이 인편을 통해 자료를 가져다줄 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수련생을 찾고 진상을 알리기 위해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마 사부님께서 저의 이 마음을 보시고 나중에 수련생이 저와 만나도록 배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심정은 비할 데 없이 감격스러웠고, 오직 사부님의 고심한 배치에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이후 수련생의 도움으로 저는 그 팀의 수련생들과 접촉했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진상 자료를 가져가 배포하며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침에 나가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공원에 가서 진상을 알렸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었고 걸으면 바람이 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공원에 가서 진상을 알리는데 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앞서가는 것을 보았고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념이 나왔습니다. ‘내가 기필코 저분을 따라가서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자 제 발이 마치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걷게 되어 금방 그분을 따라잡았고, 동시에 정말 그분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사부님께 감사드렸는데, 모두 사부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제자는 단지 발만 움직이고 입만 움직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변화가로 가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부동산 자료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행인들은 잘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가 주든 다 받았고, 그런 다음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도와주었는데 그들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들에게 평소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라고 했고, 이렇게 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그들이 가끔 저를 보면 “저는 ○○예요”라고 말했는데, 모두 제가 그들에게 삼퇴를 해줄 때 지어준 가명이었습니다.

부동산 분양 회사에서 자주 행사를 하고 차로 모텔하우스까지 태워다 주는데, 집을 사든 안 사든 별개 문제고 가서 보기만 하면 그들에게 수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자고 하면 저는 다 승낙했고, 그들도 매우 기뻐하며 저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사, 관리자, 분양 소개자가 진상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차에 탔을 때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말했고 그들도 기꺼이 삼퇴했습

니다. 어떤 곳은 비록 멀어서 돌아오면 오후 2, 3시가 됐지만, 저는 그래도 마음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줄곧 견지했습니다.

그 몇 년간 만약 고향에 경사가 있어 우리보고 오라고 하면 저도 최대한 시간을 내어 돌아갔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 구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돌아올 때 저는 수십 명의 삼퇴 명단을 수련생에게 보내 인터넷에 올려 삼퇴시키고 그들을 구했습니다.

4. 경찰차에서 진상을 알리다

그 몇 년간 진상 알리는 것이 두려운 마음 없이 매우 순조로워서, 위로는 국장부터 아래로는 초등학생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환희심, 과시심이 생겨났는데 스스로 알지 못했고, 곧 구세력에게 빌미를 잡혀 박해받았습니다. 2016년 어느 날 아침, 제가 공원에 가서 진상을 알리는데, 제일 먼저 40, 50대 남자를 만나 막 몇 마디 했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저는 더 말하지 않고 화제를 바꿨고, 이후 맞은편으로 가서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맞은편 할아버지와 막 몇 마디 했을 때 경찰차가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미처 반응하지 못했고 경찰 몇 명에게 에워싸여 경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 사람이 신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무슨 정치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 면담했는데, 막 몇 마디 하더니 제가 협조하지 않자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 같은 사람이 와서 제 피를 뽑으려 하기에 뽑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피를 뽑는 건 형식적인 절차고

저녁이면 집에 갈 수 있다며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후 그가 사람들 불러 제 손을 잡고 피를 뽑았고 사진도 찍더니, 그 뒤로는 아무도 저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방 몇 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 저는 의자에 앉아 발정념하며 사부님께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늘에서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큰 바람이 불었는데, 마치 하늘이 저를 위해 불평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가 좀 넘어 비가 잦아들자 소장이 와서 저를 구류소에 일주일 가둔다고 했습니다. 본래는 2주인데 제 아들을 봐서 일주일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묵묵히 발정념했습니다. ‘당신들 말은 소용 없어, 우리 사부님 말씀만이 소용 있지.’ 저는 사부님께 나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경찰이 수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없었는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를 채울 수 없어. 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에게 진상을 알려야 해.’ 이후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그 물건으로 날 채우려는 건가요? 좋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난 죄를 짓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내가 도망가면 젊은이 밥줄이 끊기잖아요? 좋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아요. 당신이 좋은 사람을 박해하지 않기만 하면 나중에 복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연세도 그렇게 많은데 집에서 복이나 누리시지 뭐 하러 뛰쳐나와서 이러세요!” 제가 막 그에게 진상을 알리려는데 기사가 왔고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차에 탄 후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쩌민이 왜 파룬궁을 박해하는지, 저우융캉(周永康)이라는 610 우두머리가 어떻게 대법제자를 박해했는지, 보시라이(薄熙來)가 어떻게 대법제자의 장기를 매매해 폭리를 취했는지 말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구이저우(貴州) 핑탕(平塘)현 장부(掌布)향에 있는 그 바위, 그 안에 천연적으로 형성된 여섯 글자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했습니다. “선악에는 응보가 있는 것이 천리(天理)예요. 그들은 천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은 건데, 당신들이 보기에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들은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먼저 그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은 운전하시니 매일 속으로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염하고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하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위험이든 다 피해갈 거예요. 가입했던 당(黨)·단(團)·대(隊) 조직은 제가 가명을 지어드릴 테니 속으로 ‘나는 공산당의 이런 조직에 참가하지 않고 탈퇴해서 평안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에 가입했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무슨 큰 재난이 있어도 다 평안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전 공청단과 소선대만 가입했어요.” 나중에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대신 탈퇴해줄 수 있어요. 온 가족이 평안해야 진짜 평안한 거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 아내와 딸 모두 소선대에 가입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도 가명을 지어드릴게요. 돌아가서 꼭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속으로 ‘나는 사당(邪黨)의 소선대 조직에 참가하지 않고 탈퇴해서 평안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말해줄게요.”

이어서 저는 그 젊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가입했던 공산당의 이런 조직을 다 탈퇴하세요. 앞으로 큰 재난이 올 때 공산당의 순장품이 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데 좋지 않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 부모님도 소선대에 가입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분들에게도 가명을 지어드릴 테니 집에 가거나 전화해서 소선대를 탈퇴해 평안을 지킨다고 생각하라고 하세요.”

이때 차는 이미 구류소에 도착했고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직 비가 오고 길이 미끄러우니 천천히 가세요. 딱 일주일이니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당시 저는 조금도 두려운 마음 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마음 놓고 돌아가세요.” 당시 경찰이 업무를 보러 갔는데, 기사가 열린 차에서 우산을 꺼내 제가 비 오는 그 구간을 지나가도록 부축해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속으로 사부님께 무척 감사드렸습니다. 다 사부님께서 하시는데 제자는 단지 입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5. 구류소 안에서 진상을 알리다

구류소에 도착하니 이미 밤 10시가 넘었고 그 당직(수감자 조장)은 저를 몸수색하려 했습니다. 제가 “난 아무것도 못 가져오는데 뭘 검사해요!”라고 하니 그녀는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 옆에서 주무세요.” 보니 저쪽은 벽에 붙어 있고 이쪽은 그녀 옆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부님께서 제게 배치해주신 자리라는 것을 알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부님의 고심한 배치에 감사드립니다.’

막 자리에 눕자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그렇게 못해서 구세력에게 빌미를 잡혀 이렇게 박해받는가.’ 찾아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 욕심, 환희심, 과시심, 공포심, 가족 정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다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이곳 세인을 구하고 제게 진상을 알리라고 하신 것이지 눈물을 흘리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부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에 왔으니 이곳 세인을 다 구하겠습니다. 사부님, 안심하십시오.’

이튿날 아침 기상 후 모두 허둥지둥 줄을 섰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조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따가 지도자가 와서 점검할 때 제 앞, 여기에 서 계시면 돼요. 연세가 많으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돼요.” 당시 저는 사부님께서 그녀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가지(加持)에 감사드렸습니다. 잠시 후 소위 지도자가 왔고, 감방 하나를 지날 때마다 그 안의 사람들이 그에게 안부를 물어야 했으며, 요구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해야 했고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서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그도 마치 저를 보지 못한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사부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사부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가 미처 진상을 알리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오늘 나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막 다가가 그녀와 말하려는데 밖에서 그녀 이름을 부르며 빨리 준비해서 나오라고 했고, 나중에 그녀는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부득이 일념을 발해 그녀가 나가서 수련생을 만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누가 나가는지 파악해서 각종 형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진상을 알리고 구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조장이 자기는 곧 나갈 거라며 당직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른 시간을 내어 그녀에게 진상을 알렸고 그녀도 매우 기꺼이 탈퇴했습니다.

나중에 젊은 아가씨를 찾아 당직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이 아가씨는 잘 통솔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잘 듣지 않았는데, 그러자 그녀는 울었습니다. 아마 집 생각이 났을 겁니다. 제가 보고 다가가서 달래주며 많은 말을 해주니 나중에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다그쳐 그녀에게 진상을 알렸고 나중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 소선대만 가입했어요.” 그렇게 그녀도 삼퇴에 동의했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는 매일 누군가 나가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저는 발정념하고 가부좌하는 것 외에 나머지 시간은 사람을 구하는 데 다 그쳤고, 사부님의 가지하에 두려운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비교적 순조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사부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제자는 단지 입만 움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구류소에 있는 7일간 21명에게 진상을 밝히고 삼퇴를 시켰습니다. 나온 후 저는 이 명단을 수련생에게 주어 인터넷에 올려 그들의 삼퇴를 도왔고, 그들을 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맺음말

그 몇 년간 전염병이 폭발하는 중에 많은 때 아파트 단지가 폐쇄돼 나갈 수 없었기에 진상 알리는 것도 줄었습니다. 특히 최근 2, 3년간 남편이 자주 입원하고 걷는 것이 불편해 보살핌이 필요

했습니다. 집에서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집착심이 생겼는데, 두려운 마음, 이익에 대한 마음, 안일한 마음, 원망심 등이 다 나왔습니다. 사부님의 “수련이 처음과 같으면 반드시 원만에 이른다”(각지 설법12-2013년 대뉴욕지역법회 설법) 경문을 본 후 머리가 갑자기 번쩍했습니다. 유한한 수련 시간 내에 사부님 요구대로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집착심을 닦아버리고 사부님을 따라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직장 환경에서 질투심을 수련해 없애다

글/ 중국 산둥(山東) 청년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대법 가정에서 자란 청년 대법제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대법이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라면서 사회의 각종 유혹을 접하게 돼 점차 법에서 벗어났다가, 최근 몇 년간 몸에 이상이 나타난 후에야 다시 대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회사에 신입 사원이 들어왔는데, ‘00년생’ 여자아이였고 여기서는 그녀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부분 ‘90년생’이며 소수의 ‘00년생’이 있습니다.

그녀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저는 그녀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말에 과장이 아주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방식은 대뜸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칭찬은 종종 엉뚱하고 근거가 없어서, 마치 칭찬하기 위해 칭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저는 처음에 A에 대해 은연중에 어떤 관념과 견해를 갖게 됐지만, 스스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르러서야 이런 그녀를 무시하는 마음이 점차 커져 견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예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마음이 끊임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마음을 수련하는 과정도 좋았다 나빴다 하며 반복되었습니다.

이 원고를 정리하기 시작하기 전 한동안, 이런 마음은 이미 매우 심각한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써내어 철저히 폭로하고 관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수련생과 교류하고 사부님께 보고드리는 것 또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1. 아부와 칭찬

그 무렵 마침 명혜라디오에서 ‘아부와 칭찬’에 관한 글을 집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이 바로 칭찬 듣기 좋아하는 제 마음을 겨냥해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속인 중에서 업무 능력이 꽤 좋은 편이라 그 당시 업무적으로 자주 칭찬받았고, 이 마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한 척하며 사양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꽤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나면 스스로 자신의 업무 내용을 다시 훑어보고 곱씹으며 그 속에 빠져 자만하고 만족해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정말 좀 우쭐해져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을 없애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관념을 바꾸지 못하고 이 ‘명(名)’을 좋은 것으로 여겼으며,

이런 ‘명을 추구하며 즐기는 것’을 자신으로 착각했고,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진짜 자기 것으로 여겼기에 계속 뿌리 뽑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잘됐네. 넌 칭찬 듣는 거 좋아하지 않느냐? 여기 칭찬 잘 하는 사람이 왔는데.’ 접시 하나를 들면 그릇이 품위 있다고 하고, 글씨를 쓰면 그림같이 예쁘다고 하며, 게다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데 말이 아주 거창합니다. 인터넷 유행어를 섞어 쓰니 듣는 사람이 아주 난처하고, 다른 사람과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데도 아는 척하려 듭니다.

저는 난생처음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이토록 불편함을 느꼈고, 그녀의 아부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 기간 저는 자신의 일사일념(一思一念), 일언일행(一言一行)을 매우 주의하며 A의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을 때도 즉시 관찰했습니다. ‘환희심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억제하려 노력하자 조금 효과가 있었습니다.

2. 그녀는 나의 ‘거울’

나중에 어떤 기회로 그녀와 단둘이 지내게 됐는데,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 외에도 그녀의 과거 경험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칭찬을 좋아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해 한동안 열등감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관념 속에는 칭찬이 좋은 것이라고 박혀 있었고, 그래서 칭찬하려 했으며, 그녀는 이것이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저는 심성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약간 거만한 태도로 그녀를 가르치려 했고, 쟁투심까지 더해져 그녀에게 ‘아부와 칭찬’의 해로움에 대해 말해줬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설득하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는 자기 관점을 피력했는데, 모두 현대 관념과 행위의 왜곡된 이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때때로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그녀를 설득해 다시는 그렇게 칭찬하지 못하게 할까 구상했습니다. 사실 그녀를 위하는 각도에서가 아니라, 제가 그녀의 그런 말을 듣기 싫고 반감이 들어서였으니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녀가 거울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체면과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로 남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그녀가 비춰준다고 생각해 그 점을 유의했지만, 인식이 그리 깊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갑자기 확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나의 거울이다.’ 그녀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보이는 아부나 친한 척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저의 투영이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사실은 그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줄곧 그녀의 진정한 칭찬을 느끼지 못했고(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영혼 없는 칭찬’이 아닌), 이 때문에 저는 은연중에 그녀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목적은 그녀가 진정으로 저의 우수함을 보고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찬사를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련생 교류 문장에 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남에게 불만 있는 근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충분히 아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난 줄도 몰랐는데, 사부님께서 일깨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땀 뚝리는 듯했고, 머릿속에서 구상하던 말들과 들끓던 생각들을 내려놓았으며, 그 단계에서 이 일을 털어버렸습니다.

3. 알 수 없는 질투심

또 한 번 그녀와 단둘이 대화할 때(사실 그녀는 남에 대한 경계심이 심하지만 저에게는 비교적 마음을 여는데, 저는 이것이 그녀와 저의 인연, 혹은 대법과의 인연임을 압니다), 그녀는 제게 울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사람을 매우 진실하게 대하고, 자신을 매우 선량하다고 생각하며, 남에게 특별히 잘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선량한 사람이 드물다며, 그런데도 남들이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줄곧 그녀가 매우 가식적이고, 말하는 것이 모두 영합하고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며, 목적성이 강하고 진심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매우 진실하다고 말하니 그녀에 대한 제 견해가 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사실 그녀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녀는 적어도 진(眞)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제 면전에서는 무엇을 싫어한다고 표현해놓고, 다른 사람이 그 주제를 꺼내면 대화에 끼어들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저와 다른 동료 포함) 아주 잘해준다고 말하지만, 칭찬하는 것 외에 저는 그녀가 말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해주는지 정말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저와 다른 동료들이 자주 그녀의 업무를 도와줬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을 아주 깨끗이 청소한다고 말하지만, 회사 자리는 지저분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업무가 항상 바쁘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직속 상사는 저에게 A가 매일 뭐 하느

라 바쁘지 모르겠고 결국 해놓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한번은 그녀가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잡담할 때, 누가 자기와 친구가 되는 건 그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를 계속 주시하는 이상한 굴레에 빠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녀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녀가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대조하며, ‘너는 네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달라’라는 생각을 품고 내심 불공평해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질투심이라는 것을 의식했지만 왜 이것이 질투심인지, 제가 무엇을 질투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마음을 발견한 후 법리에서 깨닫지 못해 없애지 못했고 오히려 점점 더 많이 쌓였습니다. 저는 단지 견해가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그녀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어졌고, 많은 경우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말을 받아쳐서 부정한 다음, 심지어 비꼬고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아주아주 악하다는 것을 의식했고 이때야 비로소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강렬한 마음이 생겼지!’ 이 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니 이 질투심을 없앨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장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가 선량하다는 것을 압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주 유치한’ 그녀의 어떤 생각은 사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녀의 언어와 행동 표현은 생존을 위해 후천적으로 덧씌워진 것들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진실함’은, 비록 그녀가 확실히 진실하지는 않지만 성실함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남을 절대 악의적으로 추측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아주

큰 장점이 아납니까? 현재 사회의 대부분 사람은 이 점을 해내지 못합니다. 저라는 수련인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도 현재 악의적으로 남을 추측하지 않는 것을 해내지 못하고, 때때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질투와 비꼼은 진정한 악이고, 제가 문제이며, 제 포용력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람 속에서 형성한 관념으로 사람과 일을 가늠하지 말고, 우주 특성으로 무엇이 진정한 좋은 이고 진정한 나쁜인지 가늠해야 한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 수련생과도 교류했습니다. 어머니는 “A가 자기를 좋다고 하면 좋은 거야. A는 착한 아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그녀의 이런 장점들을 떠올리며 그녀가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또 좋았다 나빴다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꽤 귀엽고 재미있다고 느끼다가도, 때로는 여전히 꼴보기 싫었습니다. 칠칠치 못하고, 물건을 아무 데나 두고, 잘 잃어버리는 것이 보기 싫었고, 여러 방면에서 교양이 없어 보이고, 먹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많이 차지하려는 것이 보기 싫었으며,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고방식과 일 처리 방식, 우리 회사는 사회의 그런 직장 문화와 습관이 없는데 그녀는 말하기 전에 온갖 밑밥을 깔고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이 보기 싫었고, 아는 척하며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알겠다고 하지만 사실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 등이 보기 싫었습니다.

제 눈에 또 A의 부족함만 보이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남을 뚫어지게 보는가? 수련은 자기를 닦는 것인데, 그녀는 나에게 연기를 펼쳐 내 마음을 얹에게 해주는 것이다! 나도 때때로 주의식(主

意識)이 약해서 내가 뭘 하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은가? 내가 인간세상의 함양(涵養)을 너무 중시하는 게 아닌가? 나도 식탐이 있지 않은가? 때때로 처세술로 말하지 않은가? 나도 아는 척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지 않은가?’ 확실히 이런 마음이 제게 다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겨냥해 제거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녀의 표정과 행동거지가 생각나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이런 느낌과 정서적 반응이 제 머릿속에서 아주 리얼하고 격렬하게 나타나 저라고 느끼게 하려 했지만 저는 끊임없이 부정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너를 멸(滅)하겠다.’

다시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그녀의 모습을 떠올려도 혐오스러운가?’ 여전히 혐오스러우면 그건 여전히 제가 아니니 다시 멸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니 그런 느낌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제가 좀 트인 것 같았고 그녀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다고 느꼈지만, 그녀의 상사가 저에게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토로할 때면 마치 공감대를 찾은 듯 말문이 터져 그녀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단번에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여기에 숨어 있었고, 이번에도 수구(修口)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단계는 또 반복됐고, 내심 어떤 것이 저를 부추겨 이 일을 담담하게 자신의 수련 제고로 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제가 좀 힘든 업무를 마치고 회사에 돌아왔을 때 몹시 피곤했는데, 회사에는 A와 다른 동료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시 여러 가지 과일을 가져갔는데 회사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두 사람에게 두 개씩 나눠줬습니다.

A는 과일을 받고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할 듯 말 듯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자 저는 좀 짜증이 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거로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지만 당시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그녀가 참 눈치 없다고 느꼈으며, 그녀의 언어와 표현 방식에도 반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를 꼭 참고 그녀에게 직접 하나를 고르게 했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몹시 불쾌한 티를 냈고 그녀가 말해도 대꾸도 안 했는데, 저의 ‘저기압’ 때문에 다른 동료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헤어진 후 저는 자책했습니다. ‘정말 그래선 안 되는데, 이건 수련인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야. 왜 통제가 안 됐지?’ 그때는 이것이 저를 수련시키는 것인 줄 생각도 못 하고 완전히 그녀의 행동에 이끌렸습니다. 저는 오는 내내 제가 왜 그렇게 그녀를 싫어하는지, 왜 그녀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불만인지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좀 이기적이거나 기타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저는 이러지 않았을 것이고, 때로는 생각이 좀 들더라도 대부분 인식하고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속인이니까, 별별 모습이 다 있지, 따질 필요 없어.’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녀에게 잘해준 모든 것을 그녀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아주 의례적이고 과장되게 고맙다고 말할 뿐 제가 느끼기에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것 같지 않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

았습니다. 물질적 보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심 어린 피드백 한 마디는 듣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게 느끼는 마음, 보답을 바라고 중시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은, 바로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아주 좋다고 여기는데 행동은 저렇기 때문에 제가 불만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네가 행동이 이렇게 별로인데도 자신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너는 네가 어떤지 좀 알아야 해.’ 내포된 말에는 또 이런 것이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행동이 이렇게 고상해도 나 자신을 좋다고 말하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 이것은 바로 사부님 설법에 나오는, 남이 잘되면 그를 위해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원고를 정리할 때야 발견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관리하고, 심지어 사람의 사상까지 관리하려 드는’ 그 사악한 당문화(黨文化)가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사악한 것이 아직도 있을까요? 예전에 저는 제게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이 저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학창 시절 저와 친한 친구가 저보다 인기가 많으면 질투심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의 이런 질투심은 아주 낮설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예전에 이 질투심의 근원을 추적하려 했지만 더 깊은 곳을 파낼 수 없었습니다. 즉, 남이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기분 나빠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고, 이런 마음이 묘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건 바로 질투니까, 네가 어떻게

된 건지 명백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는 바로 지극히 음습하고 사악한 것이니 멸해야 할 것이야. 사부님께서는 공산사령(共產邪靈)은 우주 중의 정(正)과 부(負)의 생명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존재이며 변이된 것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명확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바로 변이된 것이니까. 멸(滅)!'

이때 저는 힘이 매우 커짐을 느꼈고, 한 층 한 층 이 부패물질[敗物]을 많이 멸했으며, 그런 혐오와 질투의 정서가 없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또 한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A가 한번은 카메라 부속품을 안 가져왔는데, 자신이 외근할 때 써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갑자기 제게 자기 카메라를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에게 보여줄 리 없었습니다. 우리 카메라는 비슷해서 별로 볼 게 없는데, 그날은 웬지 그녀가 꺼내서 보여주려 했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부품이 없는 것을 발견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마침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빌려줬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사용할 때가 돼서야 안 가져온 걸 발견했을 것입니다.

저는 즉시 심상치 않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신(神)께서 그녀를 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매우 고마워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걸 하늘이 당신을 돕는 거예요.” 그녀는 전에도 제게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와줬다고 말했고, 그녀가 몇 번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마침 저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겨 제가 법(法) 중의 이치로 그녀를 깨우쳐주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사

실 진작부터 신께서 그녀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지만, 그녀는 이 개념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늘 사람이 자기를 도왔다고 여겼기에 인식을 강화해주기 위해 “하늘이 돕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마 사부님께서 제가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일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신도 도와주시는 사람인데 내가 사사건건 그녀를 못마땅해하고 사사건건 맞서는 건 신과 맞서겠다는 건가?! 아,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더는 깨닫지 못해선 안 돼!’ 그래서 제 마음속의 큰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그 무렵 마침 또 한 편의 수련생 문장을 보았는데, 대략 우리는 타인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 세계의 다채로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단번에 또 활짝 트였습니다.

언급할 만한 것은, 최근 한번은 제가 그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사심과 잡념 없이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은 평온했고 어떤 파동도 없었습니다. 일이 지난 후 그녀가 저에게 우호적이고 친근하게 대하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귀여운 아가씨네.’ 그 순간 저는 수련 제고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4. 다시 ‘명예욕’을 제거하다

제가 A에 대해 가졌던 갖가지 불만을 다시 돌아볼 때, 질투심은 이 일 중의 깊은 층면의 표현이고, 얇은 층면에서 말하자면 그녀의 표면적인 행동이 저의 어떤 사람의 관념을 건드렸기에, 제 입맛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전히 ‘명예욕’이었습니다.

저는 사람 중에서 여전히 ‘함양’, ‘명성’을 아주 중시하는데, 그녀의 행동 표현에는 바로 이런 것이 아주 결핍됐다고 느꼈습니다. 제 관념상 그녀의 행동이 너무 격 떨어지고, 체면이 서지 않고, 사리분별을 못한다고 느껴서 눈에 거슬리고 아주 불편했던 것입니다. 방금 분석해낸 질투심 속에도 이런 명예욕이 숨어 있었는데, 모두 사람 중의 명성, 체면과 관련 있으며, 알고 보니 이 물건을 건드려서 그것이 쏠사납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이 일 속에서 발견하기 전까지, 저는 제 공간장 안의 이런 ‘명예욕’에 대한 감지가 아주 모호했습니다. 저는 이 ‘명예욕’이 저를 따라다닌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압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때부터 줄곧 이런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과시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들 속에서 좋은 명성, 좋은 평판을 얻으려 하고, 사람들 속에서 저의 품위, 개성, 인지(認知), 취향 등등을 널리 알리고 과시하는 것은 모두 그것과 관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방면에서 드러났고, 많은 경우 말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과시와 자기표현이 흘러나왔는데, 바로 사부님 법 중에서 말씀하신 “잠재의식 중에 곧 이런 과시심리가 있다”(전법륜)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제가 그것을 정리할 때 아주 모호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장벽 같은 것을 만들어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마음을 제거할 때는 은연중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질투심, 쟁투심은 각각 어떤 생명인지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그들의 존재 형식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명(名)’이라는 이 물질은 제 공간장에 아주 큰 장벽을 만들어 거대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일 속에서 이런 명을 추구하는 물질을 발견했을 때, 발정념으로 그것을 제거하니 점차 뚜렷해짐을 느꼈고, 마치 이 물건의 큰 층을 제거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 후 또 한 번 발정념을 할 때, 다시 그것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어 막막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의 존재를 느끼는 것에 집착할 필요 없이 법리(法理)상에서 그것의 존재를 알았으니, 제가 확고하게 그것을 멸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확고한 일념 속에서 마침내 이 물질이 많이 제거됨을 느꼈습니다.

5. 정신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근본 집착을 제거하다

수련 과정에서 저는 저의 근본 집착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들 때부터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았고,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뿌리내려 다른 생각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국 신체 문제로 다시 수련하게 됐지만, 저는 제가 ‘병 치료를 바라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대법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음을 은연중에 느꼈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나의 근본 집착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하나의 집착심을 대할 때, 사후에 제가 그 집착을 내려놓은 원인을 회상해보니 이러했습니다. ‘이 집착은 내 상태를 나쁘게 만들 거야. 내가 만약 이 마음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바로 졸음이 오거나 피곤하거나 혹은 기타 좋지 않은 상태를 일으켜 나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 테니, 더는 이것에 집착해서는 안 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오랫동안 많은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은 마음속 깊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그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진수(眞修)자의 확고한 신념과 결심으로 ‘집착을 없애겠다’, ‘반본귀진(返本歸眞-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하겠다’는 순정한 일념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고 마침내 저의 근본 집착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과거를 회상해보면 확실히 어릴 때부터 소위 ‘상태’라는 것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평형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안일함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 세계의 안일함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활하고 은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제게 구도(求道)의 마음이 있다고 여겼고, 사람 속에서 멀리 미혹됐어도 마음속에 일념이 있어 조만간 대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지 지금은 이런 속인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줄곧 제 마음이 단순히 수련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저는 수련을 통해 정신적인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수련생 문장에서 본, ‘진(眞)·선(善)·인(忍)을 일종의 안전한 생활 방식으로 여긴다’는 생각과 좀 유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전히 사람 속에서 맴돌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전히 인간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후 아주 냉정해졌고, 수련의 엄숙함을 더욱 느꼈으며, 사부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이끄시어 사람에서 걸어 나오게 하심을 선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내면 더 깊은 층의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야 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수련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고 순정하게 하며, 더욱 맑고 이성적인 마음으로 사부님과 대법을 대해야 합니다.

대법을 떠나 있던 시간에 저는 사회의 좋지 않은 것들을 대량으로 접했고, 갖가지 젊은이들의 계층 문화, 변이된 현대 관념과 행위의 것들로 대량의 사상업(思想業)을 쌓았습니다. 한 층 한 층 없애면 한 층 한 층 사상 배후의 더 깊은 변이되고 타락한 사상이 솟아나옵니다.

저는 자주 갑자기 놀라며 깨닫습니다. ‘내가 순정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매번 이때마다 저의 현재 사상이 얼마 전 어느 단계의 사상과 이미 다름을 분명히 느꼈고, 잡념이 많이 줄었으며, 정말로 조금씩 정화되고 탈태하고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도 불가사의하다고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해주신 것이며,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사부님과 대법이 제자를 단련시켜 제자가 초심을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배치해주신 모든 수련 환경과 사람, 일을 언어로 다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제자는 그중에서 오성이 때로는 정말 너무나 안 좋아서, 이 하나의 관(關)을 일 년이나 반복해서 갈고 닦았습니다. 이후에는 더 잘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진정으로 대법에 동화된 생명이 되어 제 생명의 층층이 법 중에서 바로잡히고, 순정하고 진수하는 제자의 자태로 세상에서 조사정법(助師正法)의 사명을 잘 완수하여,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회천(回天)의 길을 안정적으로 걸어가기 바랍니다.

이상은 최근의 일부 수련 체험으로, 층차의 한계가 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스(舍十)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정진실수(精進實修) 속에서 서약을 실천하다

글/ 중국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등불입니다. 저는 2008년 11월 29일 정식으로 법을 얻었습니다. 법을 얻을 초기에는 전혀 우연한 기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을 얻은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비로소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한 명의 진정하고, 영원하며, 가장 영광스럽게 진수(眞修)하는 정법시기 대법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 무지하고 철없던 저 같은 속인을 대법 수련 속으로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아래에 제가 법을 얻은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련 과정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겠습니다.

1.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찍이 안배가 있었다

저는 법을 얻은 후에야 사부님께서 일찍부터 저를 관장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 어느 날 저녁이 기억납니다. 눈을 감으니 환한 전구 같은 것이 저를 비추었는데 매우 눈부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녹내장 아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녹내장은 아픈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럼 내일 병원에 가봐”라고 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뜻밖에도 다음 날 깨어나자 이마에서 꽃이 피어나는 듯, 한층 한층 가운데서 밖으로 뒤집어지는 것이 마치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만화경처럼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눈만 감으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법공부를 통해 비로소 천목(天目)으로 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겠지요.

기억 속에 몇몇 다른 종교가 저에게 그들의 것을 전했지만 저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한 기독교인이 억지로 저에게 같이 배우자면서 책을 몇 권이나 가져다주었지만, 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보름 동안 방치해 두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아서 나중에 그가 가져갔습니다. 그때 저는 불(佛), 도(道) 등 어떤 것에도 전혀 흥미가 없었는데, 운명이 아마 그렇게 안배했던 것 같습니다.

2007년 남편이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연히 직장의 나이 많은 언니가 저에게 대법을 알렸지만,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나 슬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한 터라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11월 어느 날, 그 언니가 또 저에게 말하길, 자기가 크게 넘어졌는데 바지는 찢어졌지만 다리는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에게 함께 연공하자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승낙했습니다.

그길로 그녀 집에 가서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빌려 단숨에 절반을 읽었고, 다음 날 이어서 보는데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금방 다 읽었더니 언니가 “한 번 더 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가져와 계속 읽었습니다. 그중 한 단락은, 첫 번째 볼 때 못 봤던 것 같은데, 보고 나서 다시 찾으니 없었습니다. 수련생에

게 말하니, 우리 모두 매일 보는데 볼수록 내용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대법 책을 한 권 모셨습니다. 매일 노년 수련생과 함께 법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갑자기 치통이 왔을 때 저는 ‘이제 법을 얻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가 정말 아프지 않게 됐으며, 이는 저의 법공부 소망과 연공하려는 결심을 강화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했는데, 때때로 다른 수련생이 나태한 모습을 보면 제가 오히려 애가 탔습니다.

어느 날, 수련생이 저에게 내일은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수련생과 구치소에 발정념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신수련생이라 위험해요”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 요청에 못 이겨 노수련생이 저를 몇 번 데려갔습니다. 막 법을 얻었을 때는 정진하려는 마음이 강해 비바람도 막지 못했습니다.

2. 세 차례 감금 박해를 타파하다

어느 날 자료를 큰 가방에 담았는데, 연말이라 달력과 CD도 있었고 수련생에게 같이 배포하러 가자고 했더니, 수련생은 눈이 와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수련생에게 들으니 파출소에서 그녀를 찾아와 제게 말을 못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식으로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 안전에 주의하지 않았고, 일하려는 마음이 올라와서 미행을 당해 파출소에 잡혀갔습니다.

그때는 진상을 어떻게 알리는지도 몰랐고, 박해에 협조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딸이 돈을 적지 않게 쓰고 처분보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처분보류가 뭔지도 몰랐고 별일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속인이라 집에 와서 저에게 더는 연마하지 말라고 했으며, 저는 “안 된다. 내가 법을 얻었는데 어떻게 사문(師門)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딸이 말하기를, 엄마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자신이 보증서를 써서 풀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계속 연마하면 자기한테도 영향이 오고 그들이 자기도 잡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랑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듣더니 화를 내며 결사적으로 연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또 연마하면 인연을 끊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연을 끊어도 나는 연마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두 길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이 가정이에요? 아니면 엄마의 대법인가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는 대법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가정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럼 우리는 파출소 가서 인연 끊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엄마를 때려죽이라고 했을 거예요”라면서 씩씩거리며 저를 파출소로 끌고 갔습니다. 파출소 문 앞에 이르자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법만 필요하고 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도 일찍 떠났는데 이 집안에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집에 가요. 내가 법원에 사람을 찾아서 형량을 가볍게 해달라고 할게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것이 가장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지한 상황에서 저는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3서인 줄도 몰랐습니다. 경찰이 종이 세 장을 가져

와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못 쓴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 것을 가져와 베끼라고 했고, 저는 앞으로 다시는 CD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않고 서명과 지장을 찍게 했으며, “별일 아니오,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판결문을 주며 사구(社區) 사무소 교정과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사구 사무소 교정과 직원은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매달 소감문을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이때야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악에 협조하는 것 아닌가? 나는 대법제자이고,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사부님께서 관장하시는데, 내가 왜 그들에게 협조하지?’ 이런 생각이 들자 정념이 나왔고 집에 돌아와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며, 그들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은 그들이 제 아이에게 전화해서 엄마 대신에 소감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저의 영향으로 정념이 강해져서 그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조작하세요?” 상대방은 화를 내며 “너희가 협조하지 않으면 네 엄마를 잡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이는 겁에 질려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상대하지 말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지나갔지만 그들이 엄마를 또 잡아간대요.” 저는 듣고 나서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으며, 확고하게 박해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진상을 알리다가 공원에서 사복 경찰에게 사진을 찍혔습니다. 파출소 경찰이 우리집 문밖에서 며칠 잠복하다가 저를 잡았고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그들의 어떤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화로 5명을 불렀는

데, 그중에는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공안, 시국(市局) 사람이 있었으나, 저는 여전히 그들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고, 많은 대법서적과 진상 자료를 압수해 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 딸이 몰래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서 부소장에게 2천 위안을 줬으니 엄마가 서명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난 서명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딸은 “그럼 내가 헛돈 쓴 게 되잖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진상을 알렸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우리를 집에 보내줬습니다.

나왔더니 사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 엄마가 저 사람들에게 헌법, 신앙, 자유를 말하더라. 내가 눈치를 줘도 본척만척하고 계속 말했어. 부소장이 그러는데, 엄마를 모시고 낙산대불이나 교회에 가래. 국가에서 못 하게 하는데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느냐고. 하지만 엄마는 ‘파룬궁’은 진정한 불가(佛家) 수련 대법이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다 연마하게 하는데 유독 중국만 못 하게 한다고 했어.” 딸이 말을 마치자 저는 사위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만능열쇠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웃으며 제가 한 일이 옳다고 찬성했습니다.

세 번째 잡혔을 때는 지난번 경험이 있어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4년 어느 날, 노간부 기숙사에 가서 자료를 배포했는데 입구에서 자전거 수리하는 사람이 신고했습니다. 시 국보에 신고했고, 그들은 반년이 걸려서 저를 찾아냈습니다. 2024년 9월, 집에서 법공부 하는데 누가 문 두드렸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사람을 불러 자물쇠를 따려고 해서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우 냉정했고 사부님의 법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면 그놈은 붙잡을 것이요 생각이 바르면 사악은 무너지리라”(홍음2-두려울 것 뭐냐). 들어온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했고 침대 위에 있는 ‘전법륜’과 ‘정진요지2’를 보더니 한 사람이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빼앗아 들고 말했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중 거구의 검은 피부 남자가 신분증을 내보이며 시국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누구든, 집에 들어와 함부로 물건을 강탈하는 것은 가택침입이고 범법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책을 뺏으려던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진정한 고층차 불가 수련 대법이고 정법(正法)이며,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며, 영웅 인물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데, 설마 좋은 사람 많은 것이 나쁘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 제가 반동 자료를 배포하는 게 찍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상 자료 한 권을 집어 그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여기 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좀 보세요. 우리가 자료를 배포하는 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이것은 반당(反黨)이라고 해서 저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텐진 사건, 중난하이 포위 공격이라는 말은 장쩌민이 소인배의 질투심에서 날조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연공하여 병이 없어지

고 몸이 건강해지는 효과는 신기할 정도며, 게다가 우리는 살생하지 않습니다. 텐안먼 분신자살을 말하자면, 진수하는 대법제자가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텐안먼을 순찰하는 경찰이 소화기와 소화 담요를 메고 다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이건 명백한 조작 아닙니까? 그 류춘링은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는데, 느린 화면으로 보면 군복 외투를 입은 사람이 때리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류쓰잉은 기관지를 절개했는데도 말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 장쩌민이 좋은 사람을 박해하고 사실을 왜곡했으며, 우리는 이치를 따질 곳 없어서 밖으로 나간 것이죠.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 중국은 중공이 아닙니다. 중화민족은 5천 년 문명이 있고, 우리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중시하지만, 공산당은 가악투(假惡鬥: 거짓, 악, 투쟁)를 중시해요. 그것이 집권한 몇십 년 동안 박해받아 죽은 중국인이 총 8천만 명이니, 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邪教, 사이비 종교)입니다.

◎ 공산당이 말한 14가지 사교에 파룬궁은 전혀 없습니다. 사교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장쩌민이 프랑스 ‘르 피가로’ 기자에게 말한 것으로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 중국 출판서는 일찌감치 ‘전법륜’ 출판 금지 결정을 폐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파룬궁의 모든 서적은 합법입니다.

◎ 공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형법, 공무원법을 설명함)

◎ 20년, 30년을 역추적합니다. 당신들은 파룬궁이 운동을 벌인다고들 생각하는데, 운동은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당신들 대신 오명을 뒤집어쓰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당신들은 결과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매번 명령을 내릴 때 정식 문서 없이 구두로만 전달하겠습니까? 왜 그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십시오. 당신들은 모두 지식이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가족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현재 공산당이 박해하는 것은 불도(佛道)를 닦는 수련인입니다. 장차 정법이 끝난 후, 신불(神佛)이 악을 행하고 불법(佛法)을 박해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신의 눈은 번개와 같아서(神目如電) 신불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또 89년 6.4 사건, 베를린 장벽 붕괴, 총구를 1cm 높인 사건 등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일일이 서술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침내 그들 모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모두 기억하겠다고 했으며 대법 사부님을 사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한 내용이 아주 많지만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파출소에 경찰 한 명이 막 들어오자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가 법을 알려줄게요.” 결과적으로 경비 경찰조차 들어와서 진상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 경찰이 말하기를, 사건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라 저를 풀어줄 엄두를 못 내지만 최대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

를 구치소로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그가 구치소 사람에게 “우리가 조사해보니 이 사람은 확실히 중병이 있는데 안 받으면 안 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곳 사람은 “대장이 안 계시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오시오”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조금 높은 것 말고는 아무 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과거에 앓던 심장병이 다 나았다며 별일 없을 거라고, 며칠 있으면 풀어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는 “심장병이 다 나은 건 바로 대법의 위력입니다. 연공하기 전에는 심장병이 아주 심했는데 지금 다 나은 걸 당신들도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정하며 고혈압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저는 “법을 얻은 후 지금까지 약을 한 알도 먹지 않았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퇴직하면 저도 당신이랑 같이 연공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 다 동문제자네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연공할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대법 책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과출소에 무슨 책인들 없겠어요? 제가 구해 드려야 하나요?”라고 했더니, 그들은 “여기 있는 책은 상급자가 못 보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저를 구치소로 데려가며, 며칠만 여기 있으면 우리가 힘껏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간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왕 왔으니 우연이 아니다. 내가 이곳에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사를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사부님께 맡기자. 동시에 나에 대한 시험이다. 나는 절대 박해에 협조하지 않고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부좌, 연공하고 가슴 앞에 한 손을 세워

발정념 했습니다. 감방 사람들이 벌 받는다면서 못 하게 했습니다. 저는 감방장에게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공해야 합니다. 나는 억울해요. 그들이 죄를 뒤집어씌우고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대대장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대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데려갔고, 저는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대대장은 계속 듣더니 마지막에 “아주머니, 그만하세요. 더 말하면 우리가 모두 세뇌되겠어요. 돌아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감방에 돌아오자 대대장이 감방장에게 “아주머니는 연세가 많으니 잘 보살펴 드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감싸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나는 당신들과 달라요. 나는 파룬궁을 연마해서 잡혀온 것이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먹는 것이든 쓰는 것이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밥을 풀 때도 양을 많이 주며 부족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반찬도 다른 사람은 그릇의 절반도 안 되는데 저는 절반 넘게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꾸준히 가부좌하고 법을 외우고 연공했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좀 조급해져서 사부님께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아직 구해야 할 중생이 많으니 돌아가서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제가 가부좌하고 사부님께 간청드리고 있을 때 감옥경찰이 들어오더니 문을 들어서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저는 계속 가부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바탕 화를 내더니 “너희 꼴 좀 봐라, 이 아주머니만도

못하다. 너희 다 다리 틀고 앉아!”라고 했습니다. 아, 사부님께 간청드린 것이 작용을 일으켰구나.

결국 다음 날 시국에서 사람이 와서 과정을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서명하라고 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명 안해준다고 하니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 법원에서 사람이 왔기에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그들은 말을 못 하게 하며 물었습니다. “죄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처벌을 인정합니까?” 저는 “죄도 인정하지 않고 처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 말이 맞습니까?”라고 묻기에, 저는 “우리 사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고 있고 당신들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장비만 챙겨 진술조서 기록원도 살피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결국 다음 날 증거 불충분으로 체포가 승인되지 않아서 저를 풀어줬습니다. 나오니 파출소 사람들이 저를 마중 나왔고, 저를 크게 포옹해주며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출소 사람이 딸에게 전화해 저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3. 대법이 날 도와 기적을 드러내다

인간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주 많은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한번은 전력국 근처에서 한 무리가 일하고 있었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40대 남자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는 “내가 바로 공안이고 당신들 일을 관할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든 우선 목숨이 있어야죠”라고 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 거는 것을 보고 틈을 타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가 뒤쫓아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고 즉시 일념(一念)을 받았습니다. ‘그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라.’

이때 슈퍼마켓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가 계속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념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게 하라.’ 제가 쭈그리고 앉아 자전거를 잠그는데, 그는 정말 저를 보지 못하고 계속 아래쪽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는 길 어귀에 이르러 사방을 두리번거렸고, 저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계속 진상을 알렸습니다.

또 한동안은 어느 기관에 중공 악당의 혈기(血旗)가 걸린 것을 보고 발정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중생을 중독하지 못하게 하라. 사라지게 하라.’ 바로 이 일념으로 이틀 후 그 혈기가 정말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여러 번 다시 걸렸는데, 그때마다 발정념을 했고 결과는 모두 다음 날 없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노란 깃발이 걸렸습니다.

또 한번은 수련생 집 주변 건물에 혈기가 걸린 것을 보고 수련생에게 왜 발정념으로 제거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수련생은 “제거했는데 소용없어요”라고 했습니다. 수련생이 저에게 제거해달라고 하여 제가 발정념으로 제거했습니다. 혈기를 걸게 한 사악이 아주 완고하여 3일 만에야 제거됐습니다.

또 한동안은 우리집 골목 외벽에 큰 시계가 있었는데, 매일 정각을 알린 후 중공의 홍가(紅歌, 공산당 찬양가)를 틀었고 소리가 대단히 커서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제가 발정념으로 제거하니 다음

날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똑같은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절대 그것이 존재하여 중생을 중독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몇 차례 대결 끝에 그 큰 시계는 다른 음악으로 바뀌었고, 저는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뜻밖에도 며칠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강력한 일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라!’ 결과적으로 그 큰 시계는 완전히 철거됐고 대형 스크린으로 교체되었습니다.

4. 법 암기의 수확

실제 수련 중에서 대법제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 잘하고, 정법 노정을 바짝 따르며 중생을 구했습니다. 법 암기를 통해 저는 많은 법리(法理)를 깨달았고 더욱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나가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했으며, 신통(神通)을 사용하여 대면해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을 배포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현수막을 걸고, 라디오, 간징월드(乾淨世界) 카드, 인터넷 차단 우회 프로그램을 배포했는데, 어쨌든 있는 것은 다 배포했습니다.

최근 명혜망 교류 문장 중에 수련생이 천목으로 사부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저는 그것이 소리 없는 경종이 되어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일을 배로 잘하여 사부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에 있지 않은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서약 이행, 각 방면의 중생을 구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명혜망 중국법회 교류는 벌써 22회째이며, 마침 올해는 제가 득법(得法)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번 법회 교류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수련을 잘하지 못하고 오성이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가슴에 뜨거운 기운이 치솟았는데, 마치 물길이 터진 듯 끊임없이 솟아나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고, 많은 수련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사부님께서 저를 일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20년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잘 정리해야 한다.’

사부님께서 30여 년 동안 전하신 모든 지역 설법 경문을 펼쳐 보면, 전체 주된 내용과 글자마다 행간마다 바로 구도(救度)! 구도! 구도입니다! 사부님께서 거대한 감당으로 연장해 주신 10여 년의 시간 역시 구도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이며 일찍이 사부님과 서약을 맺었고 하세(下世)한 것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며 바로 중생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세인은 대부분 하세하여 법을 기다리는 고층 생명이며, 모두 사부님께서 층층이 내려오시면서 인연을 맺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고, 중생은 하늘의 담력을 무릅쓰고 내려와 대법에 동화하고 대법을 원용하기 위함이며, 모두 대법제자가 구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부님을 따라 함께 정법하며 중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지극히 높고 지극히 숭고한 영광입니다.

1. 친척, 친구, 동료, 지도자를 구하다

저는 2006년에 득법한 대법제자이며, 마침 중생구도의 관건적인 시기에 당도했습니다. 2004년 11월 18일에 공산당에 관 뚜껑을 덮은 저작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이 하늘을 가로질러 출현했습니다. 2005년 1월 12일, 에포크타임스에서는 정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산당과 공산당의 기타 조직에 참가한 모든 사람(사악에게 짐승의 표식이 찍힌 사람)은 서둘러 탈퇴하여 사악의 표식을 제거하라. 이 마교를 청산할 때, 에포크타임스 저장 기록은 공산당과 공산당 기타 조직의 탈퇴를 성명한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저는 천멸중공(天滅中共)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이 붉은 마귀가 중국 인민에게 가져다준 고난을 반성하고 폭로하여, 공산당에게 속은 선량한 사람들이 그 사악한 본질을 인식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환상을 버리도록 해서, 이전에 가입했던 당·단·대(黨·團·隊) 조직에서 탈퇴해 근본적으로 중생과 세인을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 주위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진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의 직계 가족은 20여 명인데, 저와 한 수련생 가족의 공동 협력하에, 모두 중공의 당·단·대에서 탈퇴했으며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남편 집안의 친척을 구하러 갔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진상을 말하라고 했더니, 그는 가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제가 가서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말하러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그들의 가족과 관계가 보통이었고,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었으며, 일 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가슴을 졸이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에 영향을 미칠

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음성 전화를 한 번 돌려봤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한 수련생을 초청해 직접 전화를 걸게 했지만 효과가 좋지 않았고, 아무도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가 넘어야 할 관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저는 그들을 대면해야 했기에 대면해 진상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사부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번은 둘째 언니가 초대하여 그녀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저는 CD와 인터넷 봉쇄돌파 프로그램,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간 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진상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외손자와 외조카에게 말했는데 매우 순조로웠고, 말하자마자 바로 탈퇴했으므로 저는 매우 기뻐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두 명의 외조카딸에게 진상을 말했습니다.

두 외조카딸은 모두 공무원이었고, 저 역시 이전에 무상으로 그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말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 했고 단지 묵인했을 뿐이었으며, 다른 한 명 역시 매우 내키지 않아 했지만 나중에는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저의 말이 그들의 명백한 일면을 건드렸을지 모르지만 낙관적이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저는 이 교훈을 받아들여 그들이 대법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와 동년배인 언니, 형부, 여동생, 매제, 큰아주버니, 작은아주버니에게 진상을 말했는데,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웠고 반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전에 미리 준비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저를 존중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대법을 수련했기 때문이며, 육안으로도 제가 이전보다 선량하고 관용하며 도량이 넓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큰언니만이 “정치에 참여하지 마”라고 말했고, 저는 “큰언니, 안심하세요.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바르고 가장 바른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니의 큰 남동생(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했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간 진상 자료도 그들은 모두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외조카 사위가 이전에 림프암을 앓았고, 집을 팔아 치료했으며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삼퇴(중국 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한 후 그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외조카딸 부부는 삼퇴 후 사업이 성공하고 아들과 딸을 낳아 온 가족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제 남편 집안은 지금까지 실직한 사람이 없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도 없으며, 빚진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지만 모두 비교적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에 교무과 조장이었으며 평소 모두가 저를 매우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서 진상을 말하는 것도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저희는 자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주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대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근기가 매우 좋고 대법을 매우 인정했으므로, 제가 삼퇴를 말하자 그녀는 저에게 자기 가족 모두 탈퇴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 자신이 직접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그녀는 남편이 조금 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제 이웃이었는데 정말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 부부가 쇼핑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저는 바로 그녀의 남편에게 말을 걸었고 그는 바로 동의했으며, 이렇게 그녀의 온 가족이 모두 삼퇴를 했습니다. 그들은 20여 년 전에 탈퇴한 후 가족들은 복이 연달아 찾아왔으며, 여러 채의 집을 팔아 모두 돈을 벌었고, 주식도 손해 보지 않았으며, 게다가 딸과 사위 모두 유학을 갔고, 아들과 딸을 낳아 매우 행복했습니다.

또 한 동료는 화가 나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나중에 조금 후회하며 자신이 너무 제멋대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삼퇴를 말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로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자발적으로 자기 아들과 딸 모두 탈퇴시켰고, 자기 친한 친구도 탈퇴시켜 주었으며, 저에게 다른 사람을 탈퇴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복을 얻어 재결합했으며, 게다가 아들과 딸 모두 직장이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또 한 동료는 제가 그녀에게 삼퇴를 말하자 그녀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좋다고 말했으며, 당시 그녀의 모녀는 바로 삼퇴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직장 실적이 평범했지만 삼퇴 후 좋은 일이 연달아 이어졌고, 복을 얻었습니다. 일찍 고급 직함을 받았으며 게다가 곧 은퇴할 때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그녀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동료는 “저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고, 심지어 해외 전화도 받은 적이 있어요”라고 말했고, 저는 “당신은 대법과 정말 인연이 있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명의 남자 동료에게는 평소에 저는 많은 것을 미리 준비했고, 많은 대법 진상을 말했습니

다. 제가 수련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들을 삼퇴시키라고 하자 그들은 전화로 매우 시원스럽게 “탈퇴하겠습니다, 탈퇴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 주위에 점점 더 많아졌고,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제 주위의 동료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삼퇴했으며, 모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특히 역병 이전 몇 년 동안 동창회는 절정에 달했으며, 각종 친구 모임과 동창회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각종 친구 모임과 동창회에 참석하여 매우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임에 10여 차례 참석했는데,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우리 대법제자에게 중생을 구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30년 동창회, 40년 동창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으며, 학생 모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소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시의적절하게 대법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삼퇴로 평안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반장이었고 인간관계도 좋았으며, 지금도 저를 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은 모두 나이 든 아줌마들이 하는 시시한 일인데 어떻게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신적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러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진상을 많이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바로 화제를 대법으로 돌렸으므로, 지금 제가 삼퇴를 말하면, 비록 조금 민감하지만

모두 반대하지 않고 모두 동의했으며 분위기도 매우 평온했습니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 건배할 때, 가까워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어서, 자주 몇 마디 말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한 여동창은 저에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삼퇴하라고 했지만 난 탈퇴하지 않았어. 오늘 나는 널 믿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때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저는 함께 진상을 말했으며 가명을 지어줄 때, 때로 시간이 없으면 이름 중간 글자를 ‘복(福)’자로 바꿨는데, 이렇게 하니 빠르고 받아들이기도 쉬웠습니다. 저는 동창회에서 시의적절하게 지혜로움을 발휘해 많은 옛 친구와 동창생을 구했으며 그중에는 국장, 기율위원회 서기, 교장, 서기, 교육위원회 간부, 대학 및 중학교 교사, 주치의, 전문가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심층적인 원인이 사부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사부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가지(加持)해주시고, 사부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열어주신 것이며, 저는 단지 입만 움직였을 뿐인데, 사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큰 위덕을 주시고, 제가 하늘로 돌아가는 길을 깔아주신 것입니다!

또 한번은 졸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동창생들이 대규모 동창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팀을 결성하고 심지어 진지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연습했는데, 이것은 이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저는 구세력이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창회 날, 저는 갑자기 문예 공연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공

산당을 찬양하는 노래, 춤, 시 낭송 등과 문화대혁명 때의 홍가(紅歌)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 옛 동창생들은 모두 삼퇴했는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즉시 프로그램 목록을 찾았는데, 심지어 목록에서 단체(홍가) 합창 ‘당에게 산가(山歌)를 불러주네’를 보았습니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저는 반드시 이러한 행위를 저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자칭 총지휘, 총감독, 총책임자를 찾아갔는데, 저는 그들 세 명의 주요 책임자를 찾아갔고, 그들은 마침내 이 단체 합창을 취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한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으며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또 독창 ‘홍매찬(紅梅贊, 공산당 찬양가 중 하나)’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침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창생이 불렀습니다. 저는 바로 그녀를 찾아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는데 그 장제(江姐: 江竹雲, 공산당의 가짜영웅)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로 다른 노래로 바꾸기로 동의했으며 민요 한 곡도 준비했다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장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홍가를 부르고, 양거(秧歌)춤을 춘 몇 명의 동창생에게 따로 말했으며, 그들에게 앞으로 노래방에 가서 다시는 홍가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대법이 구원한 생명들이며 이미 신의 관리를 받고 있기에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자 그들은 모두 동의했으며, 마치 명백한 일면이 다시 소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퇴한 후 줄곧 당비를 내지 않았는데, 당장(黨章) 규정에 따르면 당원이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쩌민을 고소한 후 당비를

내라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저는 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미 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집으로 찾아와 방해했습니다.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었으며 저는 줄곧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의 들끓는 장쩌민 고소 대열은 저를 전면으로 밀어냈고 대중에게 노출됐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소 대열에 합류했으며, 저의 고소장을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중공이 이렇게 부패하고 파렴치할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심지어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는 모든 고소장 명단을 각급 파출소에 넘겨 대법제자를 박해하도록 했으며, 명단에 따라 사람을 납치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소한 것을 구실로 저를 박해하려 했으며 심지어 전교 대회에서 제 일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시련이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으며 법을 실증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 서기, 은퇴협회 서기, 종합치리판공실 주임에게 각각 편지 한 통을 썼는데, 각 편지마다 대법 진상,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생체 장기적출 사건, 삼퇴하면 평안을 지킴, 대법의 복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직접 편지를 그들의 손에 전달했으며 그들에게 박해에 참여하지 말고 제가 탈당하는 것은 저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니 당연히 탈퇴도 선택할 수 있으며, 사교(邪教, 사이비 종교)와 다단계 등 불법 조직만이 탈퇴를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은퇴협회 서기는 진상을 이해한 후 자신이 사직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다시는 저를 찾아와 방해하지

않았으며 당비 납부를 독촉하는 사람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2. 거리로 나아가 낯선 사람과 대면해 진상을 알리다

정법이 끊임없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대다수의 대법제자는 거리로 나아가 낯선 사람과 대면해 진상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부님의 ‘홍음2-빨리 알려라’는 2002년 8월 21일에 발표됐는데, 원래 사부님께서는 그렇게 일찍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 대면해 진상을 말하라고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줄곧 깨닫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사부님 평어 문장’을 다시 읽고, 우리가 이제 막 깨달은 것들을 일부 수련생들은 20년 전에 이미 깨달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얼마나 큰 격차인가요? 우리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 수련생 역시 지적했습니다. 대법제자는 오늘의 기회와 인연을 소중히 여겨, 대법의 진상을 중국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걸어나와 수많은 가정에 깊이 들어가,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동성을 발휘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광대한 중국인과 접촉하며,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진상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낯선 사람과 대면하여 진상을 말하는 것은 많은 수련생에게 시련이며 아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접촉하는 것은 사람이고, 특히 낯선 사람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며, 게다가 우리 수련인 중 일부는 성격이 비교적 내성적이어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면해 진상을 말하려면 반드시 거리로 나아가야 하고, 입을 열어야 하며, 낯선 사람을 대면하고, ‘과분따과하오, 찢싼런하오’라고 말해야 하며, 그들에게 중공에서 탈퇴하도록 권유하고, 사람을 구하는 선념(善念)을 유지

해야 하며, 욕을 먹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게다가 신고당할 위험도 있으며, 각종 사람 마음을 수련하여 제거해야 하고, 때로는 효과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부주의하게 아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시련을 내려놓지 않고 생사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사명과 사부님과 맺은 서약은 저에게 긴박감을 주었고, 제가 지금처럼 매일 밖으로 나가 진상을 말하고 사람을 구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비록 저도 비교적 내성적이고 때로는 편안하고 안일하게 지내고 싶지만, 저는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부님의 말씀이 언제나 귓가에 울려 퍼지므로 전혀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었으며, 저는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수치스럽고 정법 노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사부님의 정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법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나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우리 대법제자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일 쇼핑몰, 시장, 공원, 역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왕래하며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났고, 중생의 모습을 대면하며 과거 공자의 유세, 기독교의 전도, 도가의 행각을 초월했습니다. 세속 속에서, 인정(人情) 속에서, 난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수련하고 선을 수련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 중의 고통을 겪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으며,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며, 우리는 각 계층의 인연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생의 모습이 우리 앞에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며,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고,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쫓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양심이 없다고 말하며, 공산당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남들에게 탈당하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욕하며 우리가 남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속았다고 말하며, 당신 사부님은 해외에서 호강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돈을 주면 탈퇴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부님께서 행각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엄지를 치켜세우며, 우리가 담력이 있고 옳은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걱정하며, 우리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대법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사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맞추어 오는 것이며, 모두 선념을 유지하고 동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생을 대면하며 때로는 감동할 때도 있습니다. 진상을 말하는 동안 저는 40대 정도의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는 파룬궁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며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배우고 싶다고 말했으며 저와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또한 중년 여성을 만났는데, 매우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매우 아름답고 매우 장엄했으며, 성공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삼퇴를 권하자 그녀는 자신이 저보다 더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는 천안문 사태 당시 내부 영상을 스스(石獅)시에서 보았는데,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총으로 학생들을 직접 쏘아 피가 강처럼 흐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다시는 당비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이미 탈당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은 또 신불(神佛)에게 의사를 밝혀 그 사악한 낙인을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그녀는 매우 기쁘게 웃었습니다.

때로 길에서 자주 절뚝거리며 걷는 뇌졸중 환자를 보는데, 모두 공산당이 노인들에게 백신을 맞게 하여 그들을 해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과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염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자, 어떤 사람은 매우 감동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참 동안 들었지만, 어느 글자인지 분명하지 않아 저는 공손하게 종이에 적어주었고, 그는 마치 보물을 얻은 것처럼 제가 적어준 종이를 숨겼습니다.

또 한번은 공원 옆에서 매우 열정적인 한 남성을 만났는데, 제가 입을 열자마자 그는 매우 기뻐하며, “저는 당신 사부님을 뵈 적이 있어요. 스자좡에 있을 때였는데, 저는 그곳의 직원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가족을 만난 것처럼 매우 행복한 느낌을 가졌고, 저에게 그 방면의 서적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결국 그가 저에게 진상을 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많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놀랐을 때도 있습니다. 한번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사람이 계속 옆에서 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저를 오랫동안 관찰했지만 제가 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몇 사람에게 진상을 말한 후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는 저를 붙잡고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긴장돼 서둘러 떠나려고 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저는 정법위원회 사람이며 이미 은퇴했어요. 저는 마침내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됐어요. 당신은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고 저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또 한번은 운동하고 있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에게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기억하세요!”라고 말하자 그는 매우 엄숙해 보였는데, 엄숙해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가 “당신은 아직도 파룬궁을 하고 있군요”라고 말했고 저는 듣고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는 또 “리홍쯔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해서 “제 사부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또 “당신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그가 사부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할까 봐 매우 두려워 그를 빨리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그가 갑자기 “당신이 저 대신 그분께 안부 전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정신이 들었고 저는 서둘러 그에게 삼퇴를 권하자 그는 흔쾌히 동의했으며, 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 남성에게 진상을 말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길고 더러운 한 젊은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세가 채 안 된 거렁뱅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비교적 지혜롭게 화제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

걸어갔고 또 한 남성을 만났기에 다시 진상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그가 다시 따라왔고 마침 제 앞에 서 있었으므로 더이상 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바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기억하세요. 복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주 염하면 좋은 앞날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의 사업은 매우 번창하고, 어떤 사람들은 파산하는데, 이것은 신의 보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달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당신은 소년선봉대에 가입한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는 바로 “가입했어요. 저는 6년 동안 학교에 다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자, 그는 “왕(王) 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당신에게 가명을 ‘왕성공(王成功)’이라고 지어줄게요. 당신이 모든 일에서 성공하고, 직장, 가정, 생활 모두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길거리에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명입니다. 사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마터면 그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깊은 교훈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저와 다른 수련생이 함께 밖에 나가 진상을 말할 때 50세 정도의 한 남자를 만났는데 실업자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그에게 진상을 말했는데 입을 열자마자 그는 욕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집요하게 저희 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수련생은 간신히 빠져나왔고 저는 그에게 옷을 붙잡혔습니다. 수련생이 몸을 피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구경꾼이 모였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평소에도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키가 크고 교양 있는 노인이 용기를 내어 저를 지지하며,

제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 말해주고 저를 곤경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는데, 군중의 감정이 격앙됐습니다. 저는 매우 감동했고 그러한 대의명분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으며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계시며, 관건적인 순간에 저희를 위해 시련을 해결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안으로 찾았는데, 최근에 제가 휴대폰을 비교적 많이 보고, 인터넷 쇼핑을 비교적 많이 하며, 이익심이 너무 무겁고,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는 것을 알았으며, 일이 발생하자마자 저에게 누락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번은 제가 한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가 선택하지 못하다고 조금 느꼈지만, 사람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걸어 나가 그에게 진상을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는 “당신은 파룬궁이군요. 당신을 붙잡아야겠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쫓아오려고 했고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와 저를 곤경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며 “무슨 일이야, 그녀를 놓아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에게 빨리 가라고 했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복을 받으실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었고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또 저에게 사진을 찍자고 했고 저는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악수 한 번 짚은 할 수 있잖아요”라고 말했고, 저는 “죄송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저는 수련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미 없다는 것을 알고 길을 건너 떠났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사람은 원래 좋은 일을 했지만 왜 이렇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문득 깨달았는데 이것은 사부님께서 저의 색심(色心)을 제거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감사할 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지, 세속 사람에게 영합하지 않을지 보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러한 일을 만났을까요? 안으로 찾아보니, 저는 며칠 전에 사소한 일로 남편과 다투었고 제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 양보하지 않았으며, 구세력에게 빈틈을 이용당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집착들이 중생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속에서 두 번이나 색관(色關)을 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우 낙심했는데, 이번에 사부님께서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께서 하시는 일은 입체적으로 하시는 것이며, 전방위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장계취계(將計就計, 상대의 계책을 역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의 색심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제거했으며, 또 제가 안으로 찾아 자신을 수련하고 심성을 제고하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일 후, 저는 곰곰이 생각하며 스스로를 반성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자신을 잘 수련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교란받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을 잘 수련해야 한다!’ 저는 사악이 감히 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공부를 강화했고, 원래 매일 80쪽을 외웠는데, 이제 110쪽을 외우고, 때로는 저녁에 다시 한번 연공하며, 매일 1~2시간 발정념을 하고, 세속의 일은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인터넷 쇼핑을 내려놓고,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이번 단오절에는 어차피 아이도 곁에 없으므로 저희는 쫓쫓

(粽子, 약밥), 계란도 사지 않고, 간단히 생활하며, 전부 법 속에 융화됐습니다.

이러한 집착들을 내려놓은 후 저는 밖으로 나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놀랍도록 잘되고, 놀랍도록 순조롭다는 것을 기쁘게 발견했습니다.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손을 흔들 뿐 매우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구하는 숫자도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제가 주동적으로 나가고 싶고, 게다가 매일 나가는데, 대법이 이렇게 신기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또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들을 구하기가 특히 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직장 여성, 지식 여성들은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그들이 스쿠터 옆에 서 있을 때, 그들이 길가에 서 있을 때, 몇 마디 말로 바로 탈퇴하며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세 정도의 남성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피하고 싶었는데, 제가 몇 번 그들에게 협박당했기 때문이며, 휴대폰을 들고 바로 신고하거나 바로 110에 전화하려 했습니다. 한번은 순찰차가 바로 앞에 멈췄는데, 수련생의 엄호 아래 그들의 시야에서 신속하게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저는 매우 잘생긴 젊은이를 보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를 구하고 싶어서 걸어 나가 인사를 하고 기본적인 진상을 말하자 그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제가 당신에게 가명을 지어 무신론의 단, 대를 탈퇴해드릴게요”라고 말하자 그는 바로 “저에게 이름이 있어요. 저는 ‘증증일상(蒸蒸日上, 나날이 발전한다)’이라고 불러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아

요, 이 이름이 좋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 진상을 말하는 문을 열었다는 것을 놀랍게 발견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86세의 노인을 만났는데 제가 몇 마디 말을 하자마자 그는 감격하여 박수를 치며 저를 환영했습니다. “원래 리홍쑤의 제자군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저에게 붉은 스카프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당신이 저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이런 것이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수련생을 위해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일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퇴역 군인을 만났는데 그는 당력(黨歷)이 60년이나 됐다고 말했으며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딸도 과륜궁을 수련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탈당하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탈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바로 악당에 대한 정(情)이 남아있고, 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대법제자는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상을 말하는 것은 비교적 잘하지만, 집에 가면 저항이 매우 크므로 저는 이 노인과 교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와 매우 즐겁게 대화했으며 그 역시 중공 악당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법이 좋다는 것도 인정했지만, 단지 마음속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을 위해 60년 동안 일했으니 공로가 없더라도 수고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에 대해 여전히 환상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악당의 본질, 그것이 저지른 나쁜 짓, 그것이

진선인을 수련하는 착한 사람을 어떻게 박해하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탈퇴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고 그의 딸을 도와 그녀의 아버지를 탈퇴시킨 것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과정 속에는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알아요. 돈에 모두 쓰여 있어요”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이미 탈퇴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한번은 입을 열자마자 10여 년 전의 옛 동료인 것을 발견했는데, 말이 나갔으니 주워 담을 수 없어 바로 당당하게 그에게 진상을 말했습니다. 두 번은 옛 동창생에게 진상을 말했는데, 한 사람은 “저는 당신과 같은 수련생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득법했고, 제 딸은 미국에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번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자마자 제 사촌 오빠인 것을 알았는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은 수련생인 것을 발견하고 서로 웃으며 모두 기뻐했고, 수련생의 가족을 만나 “제 엄마가 바로 이것을 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일대일로 진상을 말했지만 지금은 두세 명에게 함께 말합니다. 원래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었지만 지금은 매일 밖으로 나갑니다. 원래는 비가 오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비가 조금 내려도 나갑니다. 이제 욕하는 사람이 줄었고, 신고하는 사람이 줄었으며, 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상의 전파와 정법의 진행에 따라, 사람들의 명백한 일면이 소생하고 있으며 각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생이 주동적으로 찾아와 삼퇴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로 나아가 대면하여 진상을 말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시야를 넓히고, 용량을 확대하며, 견식을 넓히고, 사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마음을 수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날 것이며,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며, 절대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찾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색욕심을 제거하는 것이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심을 제거하는 것이며,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쟁투심을 제거하는 것이고, 아무리 말해도 탈퇴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조급한 마음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수련 층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중생이 제 앞에서 보여주는 모든 행위는 모두 자신이 마땅히 제거해야 할 한 가지 마음에 대응할 수 있으며, 모두 제가 제고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대법제자가 진상을 말하는 과정은 바로 심성을 제고하고 층차를 제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공(功) 기둥을 높이고, 위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26년 동안, 저희가 진상을 말하는 방법은 가장 원시적인 손으로 베껴 쓰는 것, 철판으로 새기는 것, 등사기로 인쇄하는 것에서부터,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 장문 메시지, 위챗, 음성 전화, 직통 전화, 잉크젯 인쇄, 레이저 인쇄, 집집마다 작은 꽃을 피우는 것, 그리고 지금의 독자적으로 한 방면을 책임지고, 둘씩 짝지어 외출하여 거리로 나아가 각 방면의 중생을 구하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면해 진상을 말하는 것은 사부님의 지혜이며, 대법제자가 걸어온 법을 실증하는 길입니다. 중국은 온통 진상입니다! 도처에 진상이 있습니다! 오직 대법제자만이 이러한 자비, 이

러한 용인, 이러한 큰 선(善), 이러한 불굴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서약을 이행하고 중생구도를 실천하면서 걸어온 일부 과정이며, 분량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公安·검찰·법원 구원에 대한 체득은 다른 교류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시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90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513만 5655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